

사업회 소식

“전쟁 · 법 · 민주주의” 학술워크숍 개최

사업회 연구소는 지난해 12월 12일(토) 서울대 규장각에서 "전쟁, 법,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학술워크숍을 개최했다. 한 국제노사이드연구회와 공동개최한 이번 학술워크숍은 비상계엄이나 긴급조치 아래에서 ‘국방경비법’, ‘비상사태하법 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 등과 같이, ‘예외상태’를 규정한 법들의 기원과 성격을 검토하는 자리였다.

이날 워크숍은 역사학, 법학, 사회학 등의 연구자들이 발표와 토론을 번갈아 말도록 구성함으로써 각자 상이한 관점에서 연구를 보완하고 검토하는 형식을 취했다. 정근식 연구소장은 이날 워크숍에 대해서 “냉전시기의 법질서가 오늘날의 민주주의에 이들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도 앞으로의 연구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자리였다”며 “관심 있는 연구자와 시민들이 참석해서 실속 있게 진행됐으며 관련 신진연구자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됐으리라 생각한다”고 평했다.

제1회 청소년 사회참여발표대회 개최



지난해 12월 22일(화) 고려대 국제관 국제회의실에서 사업회와 고려대 한국사회연구소(소장 박길성 사회학과 교수)가 공동주최하는 제1회 청소년 사회참여발표회가 열렸다.

이번 대회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의식을 높이기 위해 준

비된 것으로 학교와 지역 사회 등 청소년들의 주변에서 발견되는 문제들을 공공정책을 통해 어떻게 개선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과 실천 내용을 발표하는 대회였다.

지난해 11월 30일(월) 74개 모듬이 응모한 가운데 원고 접수를 마감했고, 12월 5일(토)에 진행된 예선 심사 결과 16개 모듬의 본선 진출을 결정했다. 22일 본 대회는 사업회 함세웅 이사장의 개회사와 고려대 이기수 총장의 축사에 이어 학생들이 발표하고 심사위원의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되었다.

대회는 미국 시민교육센터(CCE)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로젝트 시티즌〉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공교육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대회 대상은 과천외고 S.G. Wannabe(사진) 팀이 출품한 “학교 주변 안전 및 환경실태”가 차지하였으며, 대상 수상작은 내년 상반기에 개최되는 미국 〈프로젝트 시티즌〉 대회에 출품할 예정이다.

민주화운동기념 · 계승단체 워크숍 개최

전국 민주화운동기념 및 계승단체 워크숍이 지난해 12월 9일과 10일 양일간 경북 칠곡의 평산 아카데미에서 개최되었다. 장명재 (사)대구경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국의 민주화운동 관련단체가 생각을 나누고 서로 힘을 합하면 못 이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첫날에는 각 단체의 금년 사업에 대한 평가와 함께 2010년 사업계획에 대한 발표가 있었고 협력방안이 검토되었다. 특히 부마민주항쟁 30년사업의 평가와 4·19혁명 50년 사업과 5·18광주민주항쟁 30년 사업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주로 논의되었다. 또한 기념사업분과와 교육사업분과로 나누어 세부사항에 대한 검토와 협력방안이 교류되었다.

둘째 날에는 다부동 전적기념관의 전쟁기념시설을 둘러본 다음 현대공원묘지의 통일열사 묘역을 참배한 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각 단체의 2010년의 사업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내년 초 이른 시기에 다시 한 번 협의의 기회를 갖기로 하고 행사를 종료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우리 사업회가 주최하고 (사)대구경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가 주관해 진행했으며, 전국 6개 지역 7개 단체에서 34명이 참가했다.



사업회 소식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 50년의 기록’ 발간



사업회가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 50년의 기록』을 발간했다. 이창복, 윤순녀, 박순희, 정인숙, 이철순 등 60~70년대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JOC) 활동의 주역들이 중심이 되어 엮어낸 책이다. 이 책은 노동운동의 불모지 대한민국에 가톨릭 신앙을 매개로하여 노동자의 권리와 삶의 향상을 위한 운동의 씨앗을 뿌렸던 1958년부터 군사독재정권의 탄압 속에서 민주노조를 가졌던 60~70년대, 87년 6월항쟁 이후 새로운 모색의 시기를 거쳐 오늘에 이르는 JOC 50년의 역사를 서술하고 있다. 아울러 JOC 활동과정의 중요한 문건들

과 사진들을 부록으로 수록하여 민주화운동사 연구에 소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 책의 출간을 기념해 지난해 12월 7일 오후 4시부터 사업회 대회의실에서 사업회 함세웅 이사장 등 임직원들과 JOC 초창기 회장 정양숙, 윤순녀, 이창복 선생 등 50여명이 모여 조촐한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JOC활동과 관련한 사료 3박스를 기념사업회에 전달하는 기증식도 열렸다.(문의 : 사료관 권형택 02-3709-7571)

『시대와 함께 호흡한 31년』 발간

71년 광주대단지 투쟁 이후 30여년 성남지역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만남의 집’을 중심으로 기록한 ‘시대와 함께 호흡한 31년’이 발간됐다. 1978년 이영숙 소피아 수녀가 개관한 ‘만남의 집’은 성남지역 노동운동과 민주화운동 발전에 큰 기여를 해 왔다. ‘만남의 집’ 개관 31주년을 앞두고 이곳을 중심으로 일했던 활동가들이 자료를 모으고 기억을 되살려 성남지역 민주화운동의 일단을 복원한 것이 바로 이 책이다. 발간위원회 위원장 이영숙 소피아 수녀를 비롯해 박미향 성남여성회 회장, 박은주, 박종진이 함께 참여했고, 이해학 목사, 하유설 신부, 이 일루미나 수녀, 양요순 수녀, 정인숙 등이 성남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소중한 증언을 남겨 주었다.



오늘을 살아가는 청소년들에게 꼭 필요한 ‘민주주의의 기초’ – 정의와 책임 발간



사업회는 미국의 권위 있는 시민교육 기관인 시민교육센터 (Center for Civic Education)가 개발한 ‘민주주의의 기초’ 교재 시리즈 중 ‘정의’와 ‘책임’을 주제로 한 한국형 교재를 펴냈다. ‘정의’와 ‘책임’에 관한 핵심 개념들은 원전의 내용을 공유하되, 학습내용과 사례는 한국의 상황에 맞게 재구성됐다. 특히 청소년들이 수업을 통해,

혹은 스스로 독서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정의와 책임의식을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현직 교사들이 수년간의 연구와 기획을 거쳐 집필했다. 청소년들을 정의로운 사회의 책임 있는 시민으로 키우고자 힘쓰는 교육자들에게 유용한 책이 될 전망이다. 구입은 전국의 서점이나 온라인 서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민주주의의 기초 – 정의편

- 초등 전 학년을 위한 민주주의 기초 ① 정의 – “정의의 사도가 왔다”
- 중학생을 위한 민주주의 정의편 –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는 교과서 “정의로운 시민 되기”
- 고등학생을 위한 민주주의 정의편 –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는 교과서 “정의, 얼마나 공정한가의 문제”

민주주의의 기초 – 책임편

- 초등 전 학년을 위한 민주주의 기초 ② 책임 – “너희가 책임을 아느냐”
- 중학생을 위한 민주주의 책임편 –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는 교과서 “행복을 책임지는 사람”
- 고등학생을 위한 민주주의 책임편 –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는 교과서 “책임, 시민으로서 할 일”

사업회 소식

〈기억과 전망〉 21호 발간



사업회 연구소가 학술지 〈기억과 전망〉 21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는 ‘소통과 실천’이란 주제로 3편의 논문을 특집으로 꾸몄다.

‘소통과 실천’이라는 특집의 기획의도는 ‘책머리에’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현재 한국사회는 지금 침묵이라는 암 덩어리를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한동안 이슈가 되어왔던 소통의 부재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다. “인간은 먹는 입과 동시에 말하는 입을 가졌다. 먹는 입만 만족시키면 말하는 입은 적당히 막아버려도 된다는 사고는 위험하다”(책머리에). 이와 같은 현실에 문을 두드리기 위해 소통의 부재를 진단하고 그 속에서 개인과 집단의 실천적 행위는 어떻게 이 해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3편의 논문을 실었다.

첫 번째, “시민불복종에 관한 정치철학적 고찰-법치주의와 시민권리를 중심으로”에서 하승우(한양대)는 시민불복종을 시민의 능동적인 정치적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수동적인 저항으로서만이 아니라 도래할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능동적인 실천전략으로서 평가한다.

두 번째, 하상복(목포대)의 “광장과 정치-광화문광장의 비판적 성찰”에서는 서울시의 광화문광장조성사업을 분석하며 광장의 중요한 기능중 하나인 시민들의 정치적 의사소통과 참여의 기능이 배제되고 있음을 강조한다.

세 번째, 홍일표(이화여대)의 “‘이중의 탈제도화’ 압력과 한국 시민운동의 대응”에서는 민주화이후 시민운동의 이론적, 실천적 쟁점이 되어왔던 사회운동의 제도화에 대한 평가를 위와 아래로부터의 이중의 탈제도화 압력상황으로 분석한 후, 참여연대가 시도하는 ‘소통적 제도화’ 전략의 가능성과 한계를 다루고 있다.

이밖에도 일반논문 5편이 함께 게재되어 있다.

중학생이 채워야할 생각주머니 〈교실의 침표〉발간

사업회가 중학생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자료〈교실의 침표〉를 발간했다. 〈교실의 침표〉는 학생들이 민주 시민이 되기 위해 필요한 핵심역량을 기념일이나, 수업주제에 맞추어 재미있는 이야기와 그림을 통해 5분 동안 생각해 볼 수 있는 엽서형태의 교육 자료이다.

이야기와 만화, 일러스트, 도표, 사진과 함께 주변의 일상을 연상하며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짧은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한 달 평균 4개씩으로 기념일에 맞춘 50개의 엽서와 교사용 안내서로 구성되어 있다.

사업회는 1년 동안〈교실의 침표〉를 활용한 민주시민교육 수업을 진행할 교사들의 신청을 받아 〈교실의 침표〉엽서 50개와 안내서를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다.



(문의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사업팀 최지윤 02-3709-7624)

사업회 소식

민주주의 강의3 · 제도편 발간

기념사업회 연구소가 『민주주의 강의3: 제도』를 발간했다. 민주주의 강의시리즈는 총 4권으로 기획되어 있다. 민주주의 역사와 사상을 다룬 제1권과 제2권은 2007년도에 출간되었다. 현대적 조류를 다룬 제4권은 2010년 상반기에 출간될 예정이다.

『민주주의 강의3: 제도』에서는 민주주의를 작동시키는 제도 전체를 조망하고, 큰 하나의 체계 안에서 하나의 부분들로 밀접하게 작동하고 있는 다양한 제도를 7개 주제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이 책의 각 장에서는 선거, 정당, 이익집단과 NGO, 대통령제-의회제, 지방분권 등 국가권한의 수평적·수직적 분업구조로서의 정부형태, 정치주체, 정치과정 관련 민주주의 제도를 의의, 역사적 기원, 유형과 장단점, 그리고 한국사회에 대한 시사점 등을 다루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 ‘정치의 사법화,’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요구, 세계화시대의 민주주의 등 최근 국내 외에서 중요한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이슈들과 과제들도 논의하고 있다.



Election and Democracy 발간



아시아 민주주의 보고서 〈Election and Democracy〉(영문)가 발간됐다. 지난해 발간된 〈Voices through Ballot〉을 잇는 이 책엔 스리랑카, 몰디브, 방글라데시, 일본, 네팔, 몽골, 인도, 인도네시아, 아프가니스탄 등 9개 아시아 국가의 선거와 정치문화에 대한 보고서가 실려 있다.

각각의 보고서들은 제도로서의 선거에 대한 관심을 넘어 선거를 규정짓는 다양한 변수들을 조명

하고 있다. 선거의 사회·정치적 배경, 선거법과 그 이행, 국가 자원과 미디어가 활용되는 형태 및 경향, 선거 전 감시활동을 둘러싼 분위기, 선거의 결과가 미래 민주주의와 사회 변화에 미치는 영향 등이 주된 연구 대상이다.

9개의 보고서는 크게 3개의 파트로 구분되어진다. 첫 번째 파트 ‘엘리트 정치에 대한 도전’은 전통적인 선거 틀을 비판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보고서들로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 파트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보고서들은 선거에 영향을 미친 사회 운동에 관심을 가진다. 세 번째 파트 ‘신생 민주주의’엔 민주주의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의 보고서가 실려 있다.

이 보고서는 해외 민주주의 관련 연구기관과 단체, 연구자 등에게 무료로 배포될 예정이다.

(문의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국제사업팀 02-3709-7632)

『한국 직접·참여민주주의의 현재』발간



사업회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을 담은 『한국 직접·참여민주주의의 현재』를 발간했다. 이 책은 직접·참여민주주의의 이론을 설명하기 보다는 그에 대한 한국사회의 경험을 정리한 책으로, 제도의 틀 내와 틀 바깥에서 이루어져 왔던 다양한 시도들을 담고 있다.

특히 주민발의, 주민투표, 주민소송, 주민소환 그리고 주민참여예산까지 주로 지자체 영역에서 행

해지고 있는 직접·참여민주주의의 경험을 정리하고 있다. 또한, 각 제도의 의의와 절차, 전반적인 운영 현황과 더불어 다수의 사례가 보여준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제도적인 부분과 현실의 경험을 아우를 수 있도록 하승수(제주대 법학부 부교수), 이 호(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소장), 김 현(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연구위원) 3인이 공동 집필했다.

이 책은 크게 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책의 1장에서는 직접·참여민주주의의 의미와 한국사회에서의 흐름을 간략하게 소개했다. 2장에서는 주민발의, 주민투표, 주민소송, 주민소환, 주민참여예산의 실제 경험들을 다수의 사례와 함께 정리했다. 마지막 3장에서는 한국의 직접·참여민주주의의 발전과제를 정리했다.

Global Citizens in Charge 발간

사업회가 세계적, 지역적, 국가적 차원에서의 직접민주주의 현황을 다룬 Global Citizens in Charge(영문)를 발간했다. 지난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유럽주민발안과국민투표기구(IRI Europe)주최로 서울에서 열린 2009현대직접민주주의글로벌포럼의 토의 내용을 토대로 제작된 이 책은 아시아, 유럽, 북미, 남미, 오세아니아의 국가들에서 들어온 19개의 기고문을 담고 있다.

이 책은 현 대의민주제의 한계점을 보완·대체하기 위해 ‘민주주의의 민주화’ 필요성에 부응해 직접민주제를 제도화·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다루고 있다. 각 대륙과 국가의 과거사례를 분석해 성공과 실패의 배경 및 향후 전망 등을 연구했다.

